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02-4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한반도 주변 5개국 호감도(2024년 10월)

2024. 10. 23.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주요 5개국 호감도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고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5개국 각각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0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로 표기하게 하였다. 그 결과 미국에 대한 감정온도가 57.1도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본(38.9도), 중국(27.3도), 러시아(25.8도), 북한(25.2도)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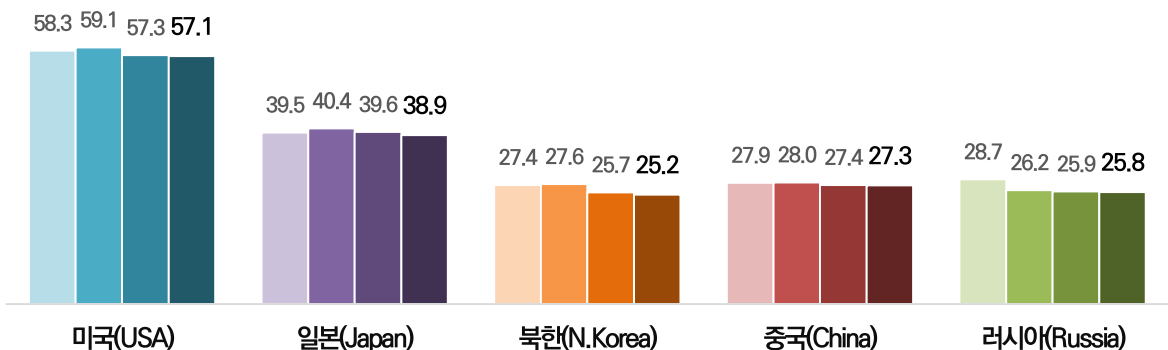
5개 국가 모두 지난 7월 당시 호감도와 1점 미만의 변화폭을 보여, 사실상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다만 북한 호감도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 7월보다 0.5점이 하락해, 다시 한 번 최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74%), 중국(73%), 북한(72%)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49도 이하의 부정적인 호감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매우 부정적(0~24도)인 사람이 3개 국가 모두 50% 혹은 그 이상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절반 가량(52%)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주요 5개국 중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고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아

■ 2024년 1월 ■ 2024년 4월 ■ 2024년 7월 ■ 2024년 10월

(단위 : 도)



질문: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your country's neighbor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feelings that are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조사기간: 2024. 1. 5 ~ 8 // 2024. 4. 5 ~ 8 // 2024. 7. 12 ~ 15 // 2024. 10. 11 ~ 14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한반도 주변 5개국 감정온도 응답분포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부정적 (0~24도)		부정적 (25~49도)	중간 (50도)	약간 긍정적 (51~75도)		매우 긍정적 (76도 이상)	계
		매우 부정적 (0~24도)	약간 부정적 (25~49도)			약간 긍정적 (51~75도)	매우 긍정적 (76도 이상)		
미국(USA)	(1000)	11	10	21	27	29	24	53	100
일본(Japan)	(1000)	34	18	52	23	15	11	26	100
북한(N. Korea)	(1000)	58	15	72	17	6	5	11	100
중국(China)	(1000)	50	23	73	17	6	3	10	100
러시아(Russia)	(1000)	55	19	74	17	6	2	9	100

질문: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your country's neighbor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feelings that are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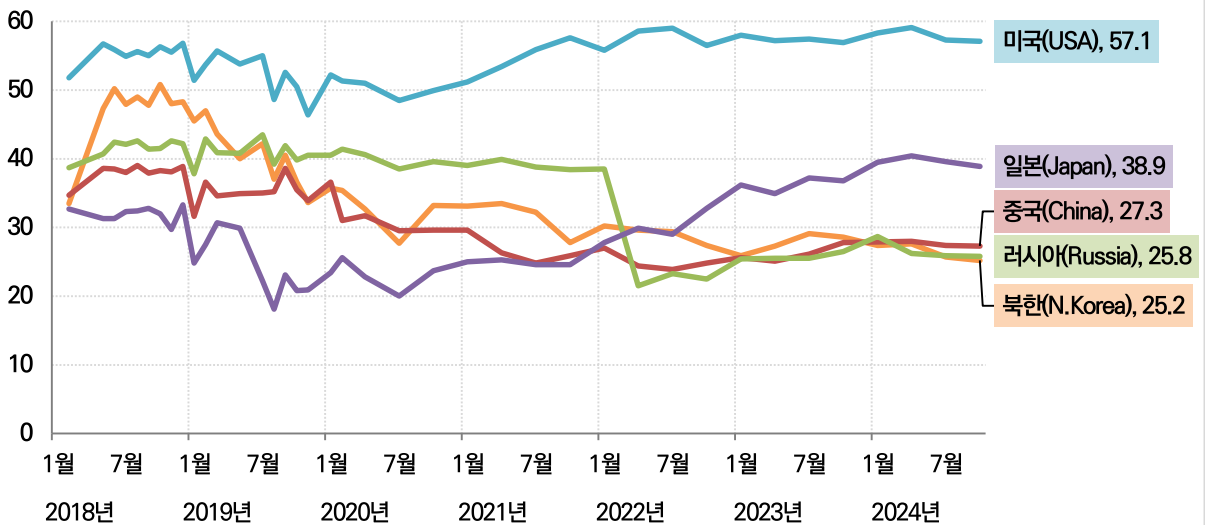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10. 11 ~ 14

응답자 수: 1,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주요 5개국 호감도 변화 추이(2018년 이후)

(단위 : 도)



질문: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your country's neighbor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feelings that are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주요 5개국 호감도 변화 추이(2018년 이후)

(단위 : 도)

		미국 (USA)	일본 (Japan)	북한 (N. Korea)	중국 (China)	러시아 (Russia)
2018년	2월	51.8	32.7	33.5	34.7	38.7
	5월	56.7	31.3	47.3	38.6	40.7
	6월	55.9	31.3	50.2	38.5	42.4
	7월	54.9	32.3	47.9	38.0	42.1
	8월	55.6	32.4	49.0	39.0	42.6
	9월	55.0	32.8	47.8	37.9	41.4
	10월	56.3	32.0	50.8	38.3	41.5
	11월	55.5	29.7	48.0	38.1	42.6
	12월	56.8	33.3	48.3	38.9	42.2
2019년	1월	51.4	24.8	45.5	31.6	37.8
	2월	53.7	27.5	47.0	36.6	42.9
	3월	55.7	30.7	43.6	34.6	40.9
	5월	53.8	29.9	40.0	34.9	40.8
	7월	55.0	22.2	42.2	35.0	43.5
	8월	48.6	18.1	37.0	35.2	39.2
	9월	52.6	23.1	40.5	38.6	41.9
	10월	50.5	20.8	36.6	35.5	39.8
	11월	46.4	20.9	33.6	33.9	40.5
2020년	1월	52.2	23.4	35.7	36.6	40.5
	2월	51.3	25.6	35.4	31.0	41.4
	4월	51.0	22.8	32.7	31.7	40.6
	7월	48.5	20.0	27.7	29.5	38.5
	10월	49.9	23.7	33.2	29.6	39.6
2021년	1월	51.2	25.0	33.1	29.6	39.0
	4월	53.4	25.3	33.5	26.3	39.9
	7월	55.9	24.6	32.2	24.8	38.8
	10월	57.6	24.6	27.8	25.9	38.4
2022년	1월	55.8	27.8	30.2	27.0	38.5
	4월	58.6	29.9	29.6	24.4	21.5
	7월	59.0	29.0	29.4	23.9	23.3
	10월	56.5	32.8	27.4	24.8	22.5
2023년	1월	58.0	36.2	25.9	25.6	25.4
	4월	57.2	34.9	27.3	25.1	25.5
	7월	57.4	37.2	29.1	26.1	25.5
	10월	56.9	36.8	28.6	27.8	26.5
2024년	1월	58.3	39.5	27.4	27.9	28.7
	4월	59.1	40.4	27.6	28.0	26.2
	7월	57.3	39.6	25.7	27.4	25.9
	10월	57.1	38.9	25.2	27.3	25.8
평균(최근 1년)		58.0	39.6	26.5	27.7	26.7

질문: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your country's neighbor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feelings that are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비고: 2018년 이후 각 국가별 최고점은 파란색, 최저점은 빨간색으로 표기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성별, 세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미국 호감도는 50도 이상 일본 호감도는 18-29세 및 보수층에서 가장 높아

이번에도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성별이나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보통(50도) 이상으로 우호적이다. 일본 호감도는 남성(42.7도)이 여성(35.2도)보다 다소 높고, 18-29세(46.1도) 및 보수층(45.4도)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 러시아, 북한 호감도는 성별과 세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낮은 수준이다. 특히 18-29세는 다른 세대에 비해 중국(21.2도), 러시아(22.1도), 북한(19.2도)에 대한 호감도가 모두 낮다. 보수층에서는 중국(26.6도)과 러시아(25.8도)보다는 북한(21.9도)의 호감도가, 진보층에서는 북한(30.1도)과 중국(30.0도)보다는 러시아 호감도(27.1도)가 조금 더 낮은 특징을 보인다.

성별, 세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미국 호감도는 50도 이상
일본 호감도는 18-29세 및 보수층에서 가장 높아

(단위 : 도)

	사례수 (명)	미국 (USA)	일본 (Japan)	중국 (China)	러시아 (Russia)	북한 (N. Korea)
전체	(1,000)	57.1	38.9	27.3	25.8	25.2
성별						
남자	(493)	61.4	42.7	26.3	26.2	22.3
여자	(507)	53.0	35.2	28.3	25.4	28.0
연령						
18-29세	(157)	60.4	46.1	21.2	22.1	19.2
30대	(149)	61.4	41.1	21.8	25.2	23.6
40대	(176)	53.6	33.5	23.5	24.6	23.6
50대	(195)	50.4	32.4	30.2	28.0	29.0
60대	(175)	57.5	39.2	32.9	28.0	28.2
70세 이상	(148)	61.9	43.5	33.4	26.1	26.3
거주지역						
서울	(185)	57.9	41.8	28.4	25.7	27.8
인천/경기	(321)	56.0	38.4	26.2	25.9	24.3
대전/세종/충청	(108)	57.8	37.1	24.9	25.3	21.7
광주/전라	(98)	53.9	33.9	32.9	25.1	29.5
대구/경북	(97)	55.4	38.1	24.8	23.6	23.2
부산/울산/경남	(149)	61.6	41.9	28.4	27.7	25.4
강원/제주	(42)	55.8	37.2	26.1	25.6	23.6
이념성향						
진보층	(297)	52.8	32.0	30.0	27.1	30.1
중도층	(329)	53.9	38.7	26.8	24.7	25.0
보수층	(345)	63.8	45.4	26.6	25.8	21.9
모름	(29)	58.0	35.1	15.2	23.5	16.2

질문: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your country's neighbor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feelings that are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조사기간: 2024. 10. 11 ~ 14

응답자 수: 1,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9월 기준 약 95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4,373명 , 조사참여 1,35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9%, 참여대비 73.9%)
조사일시	• 2024년 10월 11일 ~ 10월 1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